



전북자치도, 올해 제2회 추경 11조4781억원 편성

민생 안정·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비·지역경제 회복

1회 추경 대비 4.5% ↑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분 재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10조9,861억원보다 4,920억원(4.5%)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9조4,778억원, 특별회계 1조753억원, 기금 9,25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도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투자 등 필수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 1·2차 추경과 연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분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집행 상황을 고려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2차 추경은 민생 안정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재난·재해 대

응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투자에 방점을 두고 특별히 편성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민생 안정 분야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으로 4,873억원을 반영했다. 1차 지급분 3,398억원에 이어 2차 지급분 1,475억원을 확보해 도민들의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실는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5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보증 135억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청년·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82억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81억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14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정신 재활시설 운영비 80여억원 등을 포함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감을 두텁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안전 분야에는 금정사지 정비 152억원,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4억원,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 9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75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는 이를 통해 폭염, 호우, 산불, 지반 안전 등 생활밀착형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조기 완료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투자에도 재원을 집중했다.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 정비 1,552억원, 농경지 배수 개선 10억원,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61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 1억원, 이차전지·첨단바이오·양자기술 등 신산업 육성 13억원을 편성해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형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난·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 운용의 전락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회 추경 편성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민 체감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 미래형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경기 치르는 선수들…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막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가 개막한 28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북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근거… 전국 최초

학생·교직원·보호자 모두를 위한 4개년 종합 인권정책

6개 중점과제·12개 추진과제·30개 세부 과제 등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1차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증진되는 학교 문

화 조성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 인권 역량 강화 △소통과 참여로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적인 학교 △지역사회 인권 협력체계 구축을 4대 정책목표로, 6개 중점과제·12개 추진과제·3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인권, 생태전환과 인권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영역을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해 시대 상황에 맞는 인권의식 함양에 중점을 뒀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지속가능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인권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권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를 실현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은성 기자

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전시장 내달 1일 오픈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일부터 3일 오후 4시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전자공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내 7개 시·군(전주,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부안)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전시기간 동안 도청 1층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관람객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전시 품목은 IWC, 불가리,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며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자공매 입찰 전 실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 공매에서 지적되어 온 '실물 확인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자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통해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낙찰자는 9월 4일 발표된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도 공매물품 목록과 상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063-280-2381~3, 23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4만명 돌파

할인가맹점 206곳으로 늘어나… 작년보다 10배 이상 ↑

주요 관광지·맛집 중심 내실있는 할인가맹점 발굴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기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가 4만 명을 돌파하고, 할인가맹점도 206

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세밀한 타겟 전략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실국, 시군, 출연기관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북프렌즈 찾기 운동'을 전개해 가족·친척 등 연고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이어왔다.

또한 출향단체 행사, 보령 머드축제 같은 전국 주요 축제와 전주 한옥마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관광지 현장에서 신청을 유도하며 도민증의 가치를 알렸다.

가맹점 발굴에도 속도를 냈다. 방문객이 몰리는 관광지와 맛집을 중심으로 시군, 상인회 등과 협력해 내실 있는 할인가맹점을 확보했다.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등 공공시설은 시군과 협력하여 가맹점으로 확보했고, 민간 업소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에 현판과 안내판을 제공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홍보를 강화해 도민증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출향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 도민회 여성위원회와 재경·경기·인천 사무총장단 간담회를 통해 설

명하고, 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홍보에 앞장섰다.

전북자치도는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을 대상으로 '전북사랑 함께해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4일간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기재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과 최다 추천자 순으로 선정된다.

도는 앞으로도 실질적 혜택을 키워 도민증 가입이 곧 전북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증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전직원과 출향도민분들, 그리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가맹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도민증을 통해 전북의 가치와 가능성을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외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실 봉어섬, 광한루 등 350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한 '투어패스 1일권'과, 생생장터·참참 플랫폼 연계 시 1만원 할인가맹점이 제공된다. 또한 음식점·카페 등 206개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10만의 선택,
완주에 산다!
오늘이 좋다!**

**수소로 열어가는 깨끗한 일상, 풍부한 일자리로 활기찬 매일,
건강한 먹거리로 든든한 내일**

완주군 WANJI-GUN